

초점

July 2021 No.2

# 팬데믹 시대의 디지털 양성평등

전선민 전문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국제협력연구본부

## 팬데믹 시대의 디지털 양성평등

전선민 전문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국제협력연구본부, jsmina@kisdi.re.kr

### 요약

- 디지털 기술은 양성평등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기도 하지만 성별 격차가 상존하고,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급속하게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디지털 성별 격차 심화라는 양상으로 나타난 바 있음
- 디지털 양성격차 해소를 위한 국제적·국가적 노력이 지속되어 왔으며 COVID-19 상황에서 디지털 기술 및 서비스의 중요성이 재확인되고,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될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디지털 성별격차와 그 해소에 주목해야 할 것임
- 팬데믹은 필수적인 생명선으로서 디지털 인프라와 서비스를 인식함으로써 양성격차해소와 같은 디지털 포용을 급속히 진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는 동시에 이를 실기할 경우 디지털 양성격차의 심화와 부정적 파급효과의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 디지털 기술과 인터넷에 대한 접근성 보장, 디지털 기술 교육에 대한 참여 기회 보장 등 디지털 기술의 혜택에서 여성과 소녀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여성의 다양한 문화·사회·경제적 환경을 고려하고 여성의 필요를 반영하면서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협력이 필요

## 01 개요

- 여성들도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른 다양한 혜택을 향유하고 나아가 여성의 경제·사회적 권익이 향상된 바 있으나 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하여 디지털 성별 격차가 나타나고 있음
- 이러한 디지털 성별 격차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국제적 노력이 이루어져 왔으며 COVID-19로 인해 디지털 양성평등을 위한 노력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음
- 본고에서는 디지털 성별 격차로 인한 현안을 살펴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제언을 정리해 보고자 함

## 02 디지털 성별 격차 현황

### I 디지털 성별 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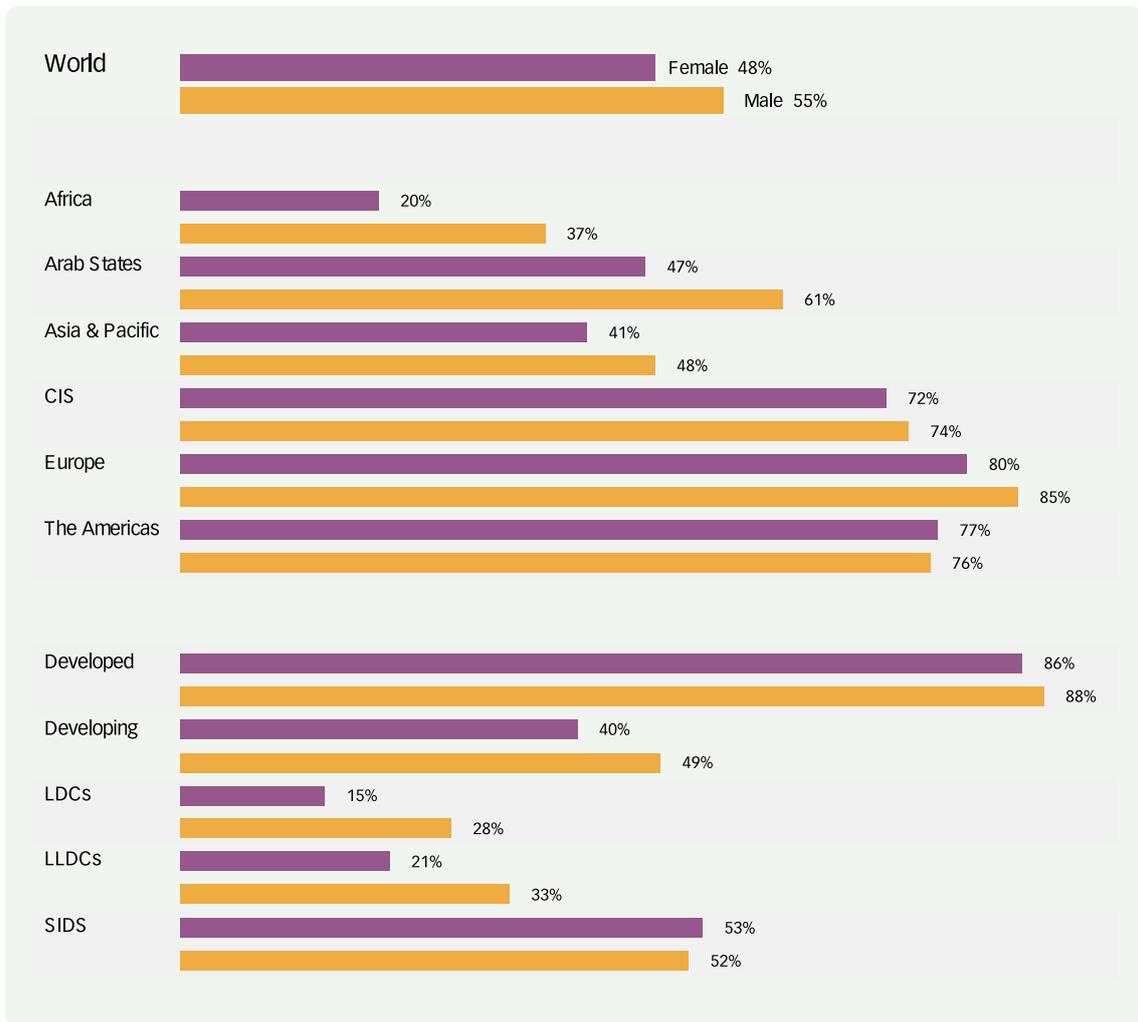
- 디지털 혁명에 따른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개발도상국의 발전에 기여하기도 하지만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디지털 격차를 심화시키는 요소이기도 함
- 또한, 디지털 기술은 양성평등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기도 하지만 기술 발전에 따른 성별 격차를 심화하기도 함
  - 디지털 기술은 여성들이 더 다양한 서비스에 접근하고 더 많은 정보를 활용하여 경제적 독립성과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여성의 권리를 보호하고 경제적·사회적·정치적 권한 부여에 긍정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으나,
  - ICT에 대한 접근성과 사용에서의 성별 격차가 디지털 시대에서의 여성들의 권한 확대와 발전을 저해하고 디지털 기술의 발전 속에 디지털 성별 격차가 오히려 심화하기도 함

### I 디지털 성별 격차 현황

-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2020년 디지털 개발 측정 보고서\*에 따르면 인터넷 사용이 증가하는 만큼 성별 정보격차도 명확해지는 것으로 나타남
  - \* ITU(2020), "Measuring digital development fact and figures 2020"
  - 2019년 전 세계 남성의 55%가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지만, 여성의 경우 48%만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고 이러한 격차는 개발도상국에서 더욱 크게 나타남

- 또한 인터넷 이용에 있어서 성별 격차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아프리카지역에서는 남성의 37.1%가 인터넷을 사용하는 반면 여성은 20.2%만이 인터넷을 사용하여 그 격차가 17%에 이릅니다
  - 저개발국(LDC, Least Developed Country)과 최빈국(LLDC, Least Less Developed Country)의 경우, 성별 격차 평균이 각각 13%와 12%로 나타남
- ※ 2020년 인터넷이용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인터넷 이용률은 남성이 94.0%이며 여성이 89.7%로 남성이 여성보다 4.3%p 이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이는 전년 대비 각각 0.1%p 증가한 수치임

그림 1 | 2019년 주요 지역 및 경제 규모별 성별 인터넷 이용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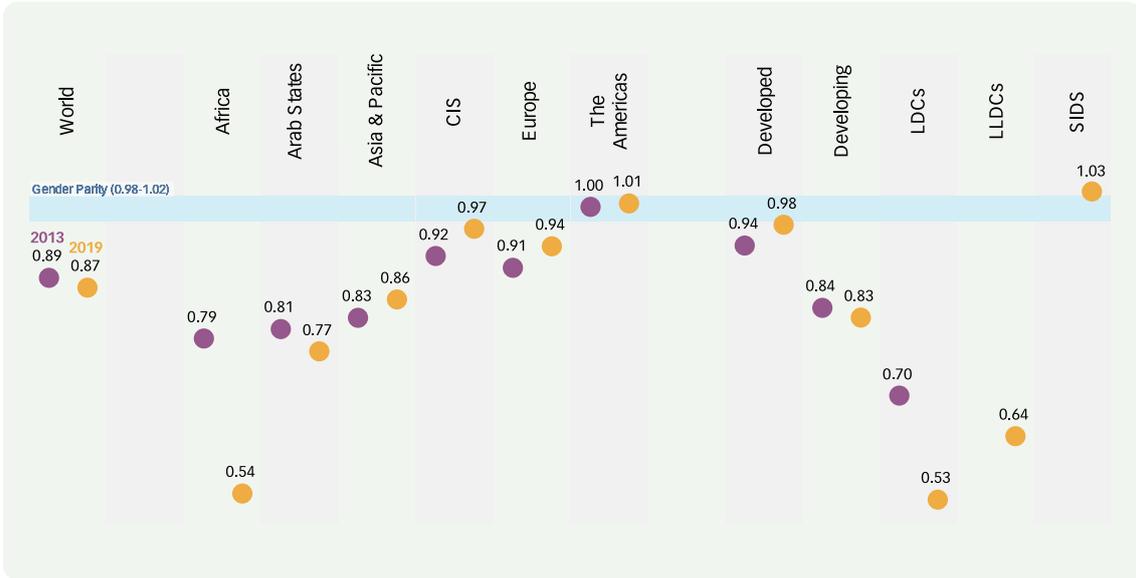


\* 소스 : ITU

- 또한 2013년과 2019년의 인터넷 사용에서의 양성평등점수\*를 비교했을 때 아프리카는 0.79에서 0.54로 2019년 성별 격차가 더 벌어졌으며 저개발국가도 2013년 0.70에서 2019년 0.53으로 양성평등 점수가 악화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양성평등점수는 인터넷을 사용하는 여성의 비율을 남성의 비율로 나눈 값으로, 1보다 작을 경우 남성이 인터넷을 사용하는 비율이 더 높다는 것을 나타내며 0.98에서 1.02 사이의 값이 양성평등을 의미함

그림 2 | 2013년 vs 2019년 인터넷 사용에서의 양성평등 점수



\* 소스 : ITU

### 03 디지털 성별 격차 해소를 위한 국제적 노력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 2030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는 SDGs의 이행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ICT와 같은 혁신적 기술에서의 양성평등과 여성의 권한 강화 및 역량 강화에 대해서도 주목
- SDGs의 여러 제반 목표들에 양성평등과 여성 권익향상에 대한 함의가 존재하지만, 특히, SDG 5의 세부 목표 5.b에 여성의 권한 및 역량 강화를 위한 ICT와 같은 실행기술 활용의 제고를 명시하고 있음
- UN은 여성의 권익향상과 양성평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으며 SDGs와 같은 목표 수립 외에도 제반 목표의 달성을 위한 다양한 노력과 활동을 진행 중
  - 실례로 최근 UN은 운영의 개혁을 통해 UN내 모든 부문에서 양성평등을 위해 노력할 의무를 추가하여 여성 권한 강화를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음

## I ITU

- ITU는 정부 간 국제기구로서 정보통신 부문 최대 국제기구이자 국제연합의 14개 전문기구(Specialized Agency) 중 하나로 1990년대 말부터 ICT 부문에서의 양성평등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해 오고 있음
- ITU는 유엔여성기구(UN Women)와 함께 성별 정보격차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국가 및 전 세계적 차원에서 디지털 양성평등을 달성하기 위해 정책적 구조를 구축하고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EQUALS라는 글로벌 파트너십을 주도
  - 특히, 여학생과 여성의 디지털 기술에 대한 동등한 접근성(Access) 확보, ICT와 과학분야에 대한 관심 제고와 능력(Skills) 향상, ICT 여성 리더와 여성 기업가 양성을 위한 지도력 배양에 중점을 두고 있음
- 또한 ITU는 2011년부터 매년 4월 넷째 주 목요일을 국제 “Girls in ICT DAY”로 지정하여 여학생과 젊은 여성들의 ICT와 과학 분야에 관한 관심도 제고를 목적으로 관련 기업·연구소 등의 방문, 워크숍, 멘토링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
- 이외에도 ITU는 ICT의 혜택을 남녀 모두가 평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서 ITU의 다양한 활동에서 양성평등과 성인지적 관점 확산을 위해 노력
  - 더 많은 여성이 ITU의 주요 의사결정과정과 논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ITU 회원국 대표단의 여성 비율을 높일 것을 권고하고 ITU의 모든 행사에서 균형적인 성비를 갖춘 패널을 구성하도록 ITU 모든 부서에 요청
- ITU는 정기적으로 ITU 구성원과 회원국의 성별, 나이, 교육, 노동력 상태 및 직업별에 대한 양성평등 관련 ICT 지표를 수집하여 보급하는 동시에 디지털 양성평등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보급하는 국가의 수를 늘리기 위해 노력 중임

## I 유엔 여성기구(UN Women)

- 2011년 1월, UN 총회 결의에 따라 여성 권익향상과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UN Women이 출범
  - UN Women은 UN 내 업무의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양성평등과 여성의 권한 강화에 관한 글로벌 규범과 정책, 기준의 시행·강화와 여성의 경제적 자율성 보장 노력,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의 보호를 목표로 함
- UN Women은 소녀와 여성 누구도 뒤에 남겨두지 않는다는 기조하에 디지털 양성평등을 진전시키기 위한 혁신 시장 개발, 혁신을 위한 논의 내에 양성평등 문제를 통합하고 혁신가와 기업가로서의 여성의 역할 홍보를 위해 노력

- 2018년에는 ITU와 아프리카연합위원회와 협력하여 아프리카 전역의 17~20세 사이의 소녀와 젊은 여성이 프로그래머, 디자이너 등이 될 수 있도록 훈련하는 4개년 프로그램인 “African Girls Can Code Initiative (AGCCI)”를 결성
  - AGCCI의 주요 목표는 젊은 여성과 소녀들을 위한 디지털 기술을 장려하고, 디지털 성별 격차가 가장 심한 지역인 아프리카에서 이들에게 디지털 기술을 배울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고 경험 공유를 위한 온라인 커뮤니티 플랫폼을 만드는 것으로 미주지역에도 2019년 동일한 이니셔티브를 시작함

## I 세계은행그룹(World Bank Group)

- 세계은행그룹은 성별 전략(2016-2023)을 통해 인간의 자질 향상, 경제적 기회 확대, 여성의 목소리와 위신 강화라는 세 가지 전략적 목표를 제시하고 이 목표 달성을 위해 ICT를 활용하는 Engendering ICT Toolkit을 발표
  - 이 툴킷은 디지털 부문에서 여성이 직면할 수 있는 접근성 확보, 디지털 기기 소유, 혜택의 제한 등의 기회의 장벽에 대해 강조하고 이러한 장벽을 해결할 수 있는 모범사례 연구를 통해 실현 가능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 또한 디지털 성별 격차 완화를 위한 현황 진단과 향후 정책 수립에 활용될 수 있는 디지털 성별 격차에 대한 통계수집과 이를 위한 전담 예산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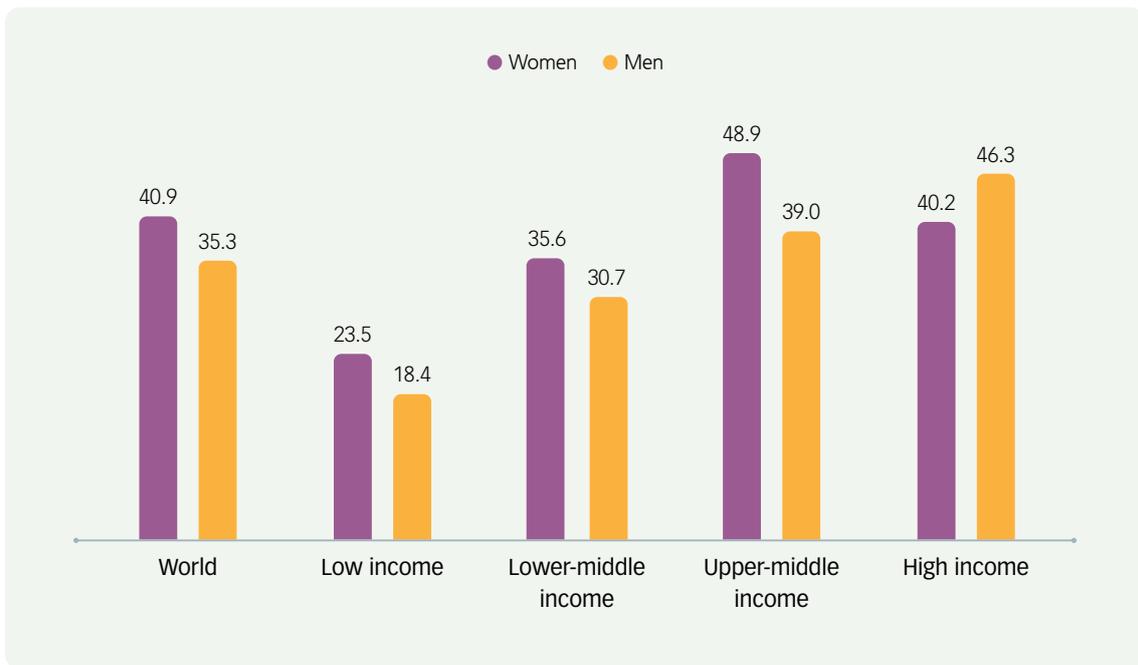
## 04 COVID-19와 양성평등

### I COVID-19의 양성평등에의 영향

- 2020년 9월 UN 산하 통계활동조정위원회(CCSA, Committee for the Coordination of Statistical Activities)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이 COVID-19 영향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으며 양성평등이 위협에 처해 있다고 기술하고 있음
  - COVID-19 전염병으로 무급 가사 업무가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증가하였지만, 여성들이 여전히 더 큰 부담을 지고 있으며,
  - 전 세계 여성의 하루 평균 무급 가사 및 돌봄 업무 시간은 남성(1.7시간/일)의 약 3배(4.2시간/일)에 달하며 북아프리카와 서아시아에서는 성별 격차가 더 크게 나타나 여성이 남성보다 7배 이상 많은 시간을 쓰고 있음
  - 학교와 보육시설, 요양시설 등이 문을 닫아 여성의 무급 가사 및 돌봄 업무가 증가하였고 소녀나 젊은 여성의 무급 가사노동도 증가

- UNICEF에 따르면 2010~2018년까지 중서부 아프리카 국가들에서 소녀들이 소년보다 매주 21시간 이상 더 많은 시간을 집안일을 돕는데 쓰는 것으로 나타남
- UN은 COVID-19로 학교가 문을 닫으면 소녀들이 무급 가사와 돌봄 업무에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게 될 것으로 예측
- 상기와 같은 무급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의 편중 배분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막는다는 데에 그 문제점이 있으며 이는 여성이 남성보다 고용에 있어서 더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 ILO에 따르면 2020년 여성 노동인구의 약 41%가 숙박, 요식업, 소매업을 포함한 COVID-19 폐쇄 조치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분야에서 종사하여, 전염병이 고용에서의 성별 차이를 악화시킬 것으로 예상함
    - ※ ILO는 2020년 COVID-19와 직업 모니터링 2차 보고서에서 숙박, 요식업, 소매업, 제조업, 부동산 관련업을 COVID-19 영향으로 노동시간이 줄거나 고용률이 줄어듦 위험이 가장 큰 직업군으로 분류한 바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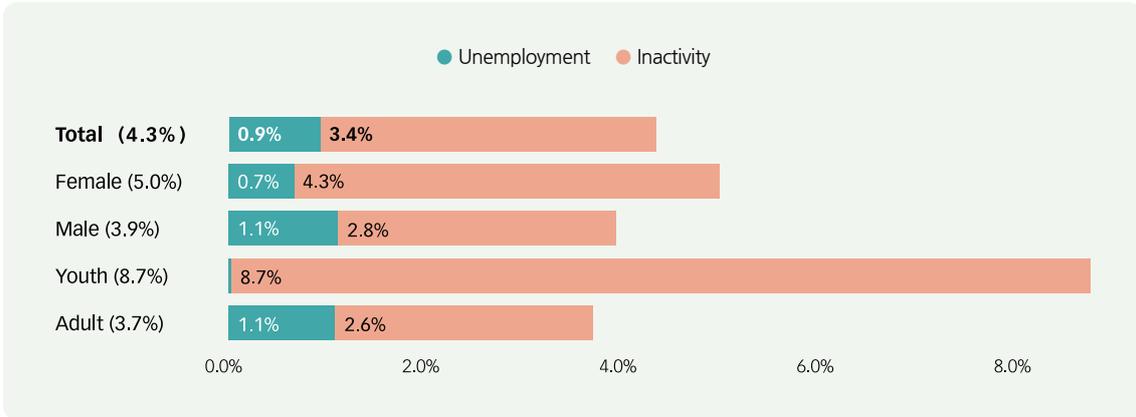
그림 3 | 2020년 COVID-19의 영향을 많이 받는 분야의 성별 고용률



\* 소스 : ILO

- 2021년 4월 ILO 통계에 따르면, 2020년 팬데믹이 남녀 모두에게 영향을 미쳤지만, 실제 여성의 고용이 5% 감소하여 남성의 3.9%에 비해 더 많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더해, 해당 실업 인구 중 여성의 경우 9/10가 구직을 포기하고 비경제활동 인구가 되었으며 이는 7/10인 남성의 경우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4 | 2020년 성별 실업 및 비경제활동비율



\* 소스 : ILOSTAT, 2021년 4월

- 또한 OECD 통계에 따르면, 미국에서 2020년 3월 여성의 실업률이 4.4%였으나 4월에는 16.1%까지 치솟았으며 2020년 말에는 6.7% 나타났으며 이는 2019년 말 대비 3%p 증가한 수치임

※ 우리나라의 2020년 고용률은 전년보다 0.8%p 하락한 60.1%로 나타났으며 실업률은 4.0%(여성은 4.0%, 남성은 3.9%)로 전년보다 0.2%p 상승

- COVID-19는 양성평등의 향상에 위기를 초래했으며 일부 국가에는 더 큰 영향을 미쳤고 기존의 수평적 불평등이 존재하는 곳에서는 그 위기의 영향이 더욱 크게 작용할 수 있어 국가 내의 집단에도 영향의 차이가 존재

-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차원에 걸쳐, 여성이라는 이유로 여성과 소녀들이 더욱 불평등한 영향을 받는 국가에서는 COVID-19가 성 불평등에 미치는 즉각적인 영향이 건강과 교육, 무급돌봄 노동의 부담과 성 기반 폭력 등에서 나타나고 있음

- WHO에 따르면 팬데믹을 포함한 위기·재난 상황에서의 여성에 대한 폭력이 증가해왔으며 EURONEWS는 2020년 3월 17일부터 28일까지 프랑스의 3주간의 봉쇄 기간 동안 신고된 가정 폭력 건수가 30% 증가했다고 보도

- UN Women이 2020년 진행한 긴급 양성평가\*에 따르면 동남아프리카 국가에서 봉쇄조치로 소녀들이 학교에 가지 않으면서 성폭력과 조기결혼 등에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 특히 가난한 국가와 소외지역 거주 소녀, 장애가 있는 소녀들이 이러한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남

\* 팬데믹에 의한 영향의 정확한 평가는 더 많은 시일이 소요될 것이며 이에 앞서 UN Women은 2020년 62개국에서 긴급 양성평가 (rapid gender assessments)를 시행하였음

- UNESCO는 팬데믹 발생 초기, 과거 에볼라 경험으로 비추어 볼 때 COVID-19로 인해 여학생들의 교육이 심각한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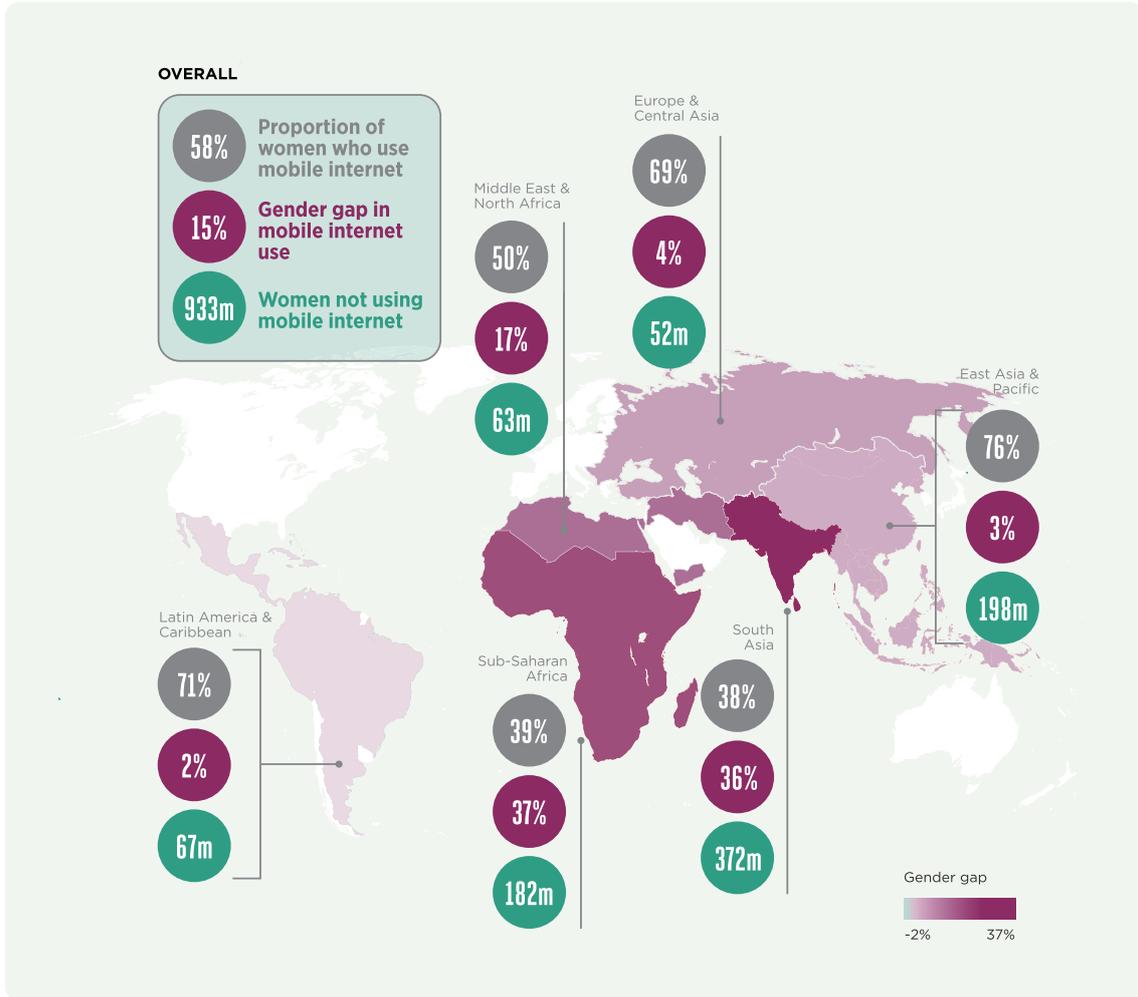
- 또한 UNESCO는 올해 학교가 다시 개강해도 약 1,100만 명의 소녀들이 학교로 돌아오지 못할 것으로 예측

- UN Women과 UNDP에 따르면 2021년 말까지 COVID-19로 인해 하루에 USD 1.9달러 이하로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빈곤층은 9,600만 명으로 이 중 여성과 소녀들의 숫자는 4,7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함
  - 팬데믹으로 25세에서 34세 사이 인구의 빈곤의 성별 격차가 2021년 남성 100명당 여성 118명에서 2030년까지 남성 100명당 여성 121명으로 격차가 벌어질 것으로 예상

## I COVID-19와 디지털 양성격차

- COVID-19로 인해 핵심 인프라와 서비스로서의 ICT의 확산과 활용이 중요해지면서 디지털 포용의 중요성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그 어느 때보다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중요해진 것을 의미하기도 함
  - WEF의 2020년 보고에 따르면, 팬데믹 이후 전 세계 인터넷 사용량은 70%,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사용량은 두 배, 음성 통화는 세 배,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들은 두 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ITU는 전 세계 인구의 50%에 가까운 36억의 인구가 여전히 완전히 인터넷과 단절된 상태로 남아있고 COVID-19로 인해 수십억 명이 불충분한 인터넷 연결성으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고
- 또한 팬데믹으로 인해 학교가 폐쇄되었지만 온라인 서비스에 접속하지 못해 원격 학습을 할 수 없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중남미에서만 1억 5천 4백만 명 이상으로 나타남
  - UNESCO에 따르면 2020년 3월 185개국 학교가 문을 닫아 74,300만 명의 여학생들이 등교하지 못했고 이 중 11,100만 명은 최빈국 소녀들로 무급가사노동에 동원되거나 인터넷이나 IT 기기가 없어 원격 학습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측
  - WEF는 팬데믹으로 인해 수백만 명이 원격으로 일할 수 있게 되었지만, 이러한 원격근무 기반시설이 없는 개도국의 근로자 수백만 명은 선진국의 동료들보다 뒤처질 위험에 놓이게 되었다고 설명
- GSMA에 따르면 COVID-19의 제한과 폐쇄가 연결의 필요성을 증가시켰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전염병이 여성의 단말기 소유에 불균형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초기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고 명시
  - 2020년 중·저소득국가 기준, 남성에 비해 7%p 적은 약 83%의 여성이 휴대폰을 소유하고 있으며 이는 휴대폰을 소유한 여성이 남성보다 14,300만명 적다는 의미임
  - GSMA는 이러한 성별 격차가 지역별·국가별로 상이하여 팬데믹의 여성의 모바일 소유에 대한 장기적인 영향력에 대해 평가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서술하고 있음
- 또한 GSMA는 모바일 인터넷 사용 인구가 몇 년간 꾸준히 증가해왔고 2020년 중·저소득 국가에서 여성의 모바일 인터넷 사용이 전년 대비 증가하여 COVID-19 상황에서도 다소 진전을 보였으나 성별 격차가 여전하거나 심화된 국가들도 있어 장기적인 영향력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을 강조

그림 5 | 중·저소득 지역에서의 모바일 인터넷 이용의 성별 격차



\* 소스 : GSMA

- 남아시아에서 2019년 대비 2020년 모바일 인터넷 사용 성별격차가 50%에서 36%로 줄어든 것이 가장 큰 차이로 남아시아지역의 모바일 인터넷 사용 성별격차가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지역보다 적게 나타난 첫 사례임
- 중·저소득 국가에서 1,200만명의 여성이 추가로 모바일 인터넷을 사용하기 시작했으나 여전히 남성에 비해 15%p 적은 비율의 여성이 모바일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음
- 여성의 모바일 인터넷 활용 비율이 가장 낮은 국가는 케냐, 방글라데시, 파키스탄으로 이들 국가는 여성의 모바일 소유 비율도 낮은 국가들이며 이는 여성의 휴대폰 소유가 모바일 인터넷 활용으로 연결됨을 보여줌
- 여성과 소녀들의 인터넷 활용에 장벽으로 작용하는 것에는 IT 기기와 인터넷에 대한 접근성 외에도 디지털 활용 능력, 이용가능한 가격, 안전과 보안 문제, 필요성 인식 등이 있음
  - 2019년 OECD 데이터에 따르면 여성이 평균적으로 디지털 기술에 대한 접근성, 활용능력, 이용경험 등이 남성에 비해 낮게 나타남

- 또한 다수의 개도국에서는 여성들의 휴대폰 소유나 인터넷 사용을 반대하는 주요 이유 중 하나가 온라인 폭력 등에 노출될 우려 때문이며 GSMA에 따르면 이러한 온라인 안전에 대한 우려가 중남미에서 여성의 모바일 인터넷 활용의 가장 큰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음
- 알제리,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등 다수의 중·저소득 국가에서 여성이 모바일 인터넷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가족의 허락이 필수적인 것으로 나타남

## 05 디지털 성별 격차 해소의 중요성

- 중·저소득 국가의 경우 언택트 시대로 일컬어지는 COVID-19 대유행 및 대유행 이후의 시대에서 디지털 양성격차의 부정적 파급효과가 크고 광범위한 분야로 확대될 수 있으므로, 개발협력의 측면에서 이에 대한 시급한 조치와 노력이 필요한 시점임
  - 중·저소득 국가에서의 모바일 폰의 소유와 인터넷 이용에 있어서의 성별격차가 모바일 뱅킹, 전자상거래, 온라인 학습, 온라인 농업기술, 보건 서비스, 성 폭력 퇴치를 위한 앱 등에 대한 여성의 제한된 접근을 의미
  - 팬데믹이 여성근로자와 기업가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디지털 솔루션이 존재하지만, 소녀와 여성의 인터넷 연결이나 IT 기기에 대한 접근성 부족과 낮은 디지털 활용능력이 이러한 혜택을 받는 데 걸림돌로 작용
- 특히, 글로벌 위기 상황에서 인터넷 연결은 다양한 방법으로 여성을 지원할 수 있으나 중·저소득 국가의 많은 여성들이 여전히 그 혜택에서 소외되어 있음
  - 의사와의 온라인 의료 조언 또는 원격 영상 상담
  - 음성 통화 및 비디오 앱이 격리기간 동안 친구 및 친척과 연락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
  - 모바일 머니를 사용하여 대유행병의 피해를 입은 가족에게 자금을 보내고, 필수 청구서 및 서비스에 대한 비용 지불
  - 팬데믹 중 정부로부터 디지털 복지금 수령
  - 홈스쿨링 아동 지원을 위한 온라인 교육 콘텐츠
  - 소규모 비즈니스를 유지하거나 필수 제품을 찾기 위한 온라인 시장
- G20도 2020년 12월 정책 개요(Policy Briefs)를 통해 COVID-19 팬데믹이 증폭시킨 구조적 불평등으로 여성과 소녀들이 크게 영향을 받는 상황에서 COVID-19의 구제조치나 사회 지원에 있어 양성평등을 고려한 정책과 프로그램의 부재는 구조적 불평등을 악화시키고 사회·경제적 진보 및 UN SDG 달성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는 우려를 표명한 바 있음
- 이처럼 디지털 배제와 디지털 불평등으로 많은 여성과 소녀들이 불이익을 받는 상황을 완화할 수 있도록 COVID-19 대응 정책과 조치에 양성평등 관점을 반영해야 할 필요가 있음

## 06 디지털 성별 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

- 디지털 성별 격차는 크게 다음의 세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격차 해소를 위해 다양한 국제적 논의와 노력이 이루어져 왔고 COVID-19의 대응과 이후의 상황을 고려한 노력이 필요
  - 1) 디지털 기술과 인터넷에 대한 접근성 차이
  - 2)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고 이러한 기술의 설계 및 개발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기술 개발 교육의 참여 기회 차이
  - 3) 디지털 분야에서 가시적인 리더십과 의사 결정자의 역할로의 참여 기회 차이
-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디지털 기술과 인터넷의 접근성이 여성에게도 동등하게 보장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디지털 기술의 접근과 사용이 용이하고, 저렴하며, 제한적이지 않고, 동등해야 하며, 여성의 다양한 환경, 요구, 안전성 및 우선순위를 충족할 수 있어야 함
  - COVID-19 복구 정책에 인터넷과 모바일에 대한 소녀들과 여성의 접근성 향상에 대한 부분이 포함되어야 하고 산업계·정부·다자기구·개발자들은 디지털 기술을 포함한 디지털 성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가속화해야함
- 또한, 소녀와 여성들의 ICT 분야에 대한 관심 고취와 참여 증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디지털 양성평등을 위해 디지털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각 국가의 정책과 전략 수립이 필요
  -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그동안의 국제사회의 노력이 여성들이 합리적인 가격의 인터넷이 가능한 모바일 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부분에서 많이 이루어져 왔으며,
  - 이제 여성과 소녀들의 모바일 디지털 활용 능력을 높이는 교육과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가 필요한 시점임
  - 디지털 역량 강화는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하는 부분이며 특히, 개도국과 여성 등 취약 계층의 역량 강화와 효율적 교육이 매우 중요
- 디지털 성별 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 역량강화는 국가별 상황에 맞추어 이루어져야하며 각 국가나 지역의 정치·경제·문화적 상황을 고려한 성별격차 완화를 위한 디지털 역할 강화 방법론이 필요
  - 특히, 중·저소득국가의 다수의 가정이 소녀와 여성의 필요보다 소년과 남성의 학습이나 직업 및 사회적 필요를 우선시하기 때문에 IT 기기와 인터넷 액세스 제공만으로는 이러한 사회문화적 차별을 해결하기에는 불충분하며 자원에 대한 공유를 촉진하기 위한 문화적 개입이 필요함
- 또한, 디지털 성별 격차를 이해하고 이러한 격차 해소를 위한 목표설정과 진행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정확한 성별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발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
  - 특히, COVID-19로 인한 성별 격차나 기타 불평등의 문제도 아직까지 제한된 데이터 가용성으로 인해 여전히 의문점으로 존재하는 부분이 많으며 시의적절하고 세분화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공개하는 것을 촉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점임

- 디지털 성별 격차 해소를 위해서 정부, 공공기업, 사기업 및 시민단체의 협력과 노력이 이루어져 왔으나 COVID-19 이후로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민관공동협력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었고 이를 위한 전체론적 접근론에서 성별격차 해소 관점을 포함하려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임
  - 이를 위해서는 디지털 기업과 시민사회의 참여도 중요한 요소이지만 다양한 글로벌 이해당사자들과 협력하여 디지털 기술 개발에 내재된 성 편향성을 제거하고 디지털 기술의 개발, 디자인 및 거버넌스에 여성을 포함하는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정책의 윤리적 기준 프레임워크를 개발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기초적 단계의 디지털 기술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활용 능력, 프로그래밍 등 중급이상의 고급 활용능력에 있어서의 성별 격차 해소 노력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STEM교육에의 여성들의 참여 증진 필요
  - ※ ICT 선진국으로서 한국은 디지털 양성평등 수치가 높지만 디지털 기술의 개발과 활용, 디지털 분야의 리더십 등에 있어서는 여전히 성별 격차 해소 노력이 필요

- ▶ 2020년 인터넷이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인터넷 이용률(남성:51.2%,여성:48.8%)과 인터넷 이용빈도(0.6%p차이) 및 휴대폰 보유 비율(남성:93.2%,여성:89.0%)에 있어서 성별 격차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남
- ▶ 2020년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남녀 디지털 정보화 수준이 남성 103.9% 대비 여성 96.1% 수준(기준:일반국민 100%)으로 거의 없으나 디지털정보화 역량(13.7%p)과 디지털정보화 활용(8.6%p) 수준에 있어서는 일부 격차가 존재

- COVID-19와 같은 팬데믹 대응 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과 같은 기술의 발전으로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을 포함한 모두가 디지털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매우 중요
  - 한국 정부는 이러한 측면에서 디지털 뉴딜 정책을 통해서 전 국민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 및 계획하고 있음. 이는 디지털 포용을 위한 ICT 분야 여성인재 네트워킹 등에 대한 내용도 포함
  - 또한 최근 과기부는 전 생애주기에 걸쳐 여성과학기술인의 성장을 지원하는 온라인 플랫폼(W-브릿지)을 지난 3월 말부터 운영하여 4차 산업혁명시대에 부족한 과학기술 인력 수급문제 해결을 위해 여성인력 양성을 위해 노력,
    - 초·중·고생에게 과학기술분야 진로정보, 우수 여성과기인 롤모델 및 교육 콘텐츠 제공 등을 통해 과학기술 분야 진로선택에 도움을 주고 대학생에게는 해당분야 취업역량을 높일 수 있는 콘텐츠 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 디지털 분야에서 여성의 가시적인 리더십과 의사 결정자의 역할로의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연대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노력이 필요

 참고문헌

- 김태은(2018), 디지털 양성평등 달성을 위한 국제적 논의의 시사점. KISDI
- 김태은·전선민(2016), 여성과 ICT\_지속가능발전목표 5의 이행. KISDI
- 과기정통부(2020), 2020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20), 2020년 인터넷이용 실태조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통계청(2021), 2020 한국의 사회지표, 통계청
- Broadband Commission(2018), “Bridging the gender gap in Internet and broadband access and use”, 23-24. Broadband Commission
- CCSA(2020), How COVID-19 is changing the world: a statistical perspective Volume, UNCTAD
- EuroNews, “Domestic violence cases jump 30% during lockdown in France”, <https://www.euronews.com/2020/03/28/domestic-violence-cases-jump-30-during-lockdown-in-france?fbclid=IwAR0zKgyaALr9vNUoNghbVTkV08xvhEWwoLPgJzrYM13ICW2DxNGZ1hmc78>, (Searching date: 2021.3.31.)
- G20(2020), “COVID-19 Response Strategies, Addressing Digital Gender Divides ”, [https://www.g20-insights.org/policy\\_briefs/covid-19-response-strategies-addressing-digital-gender-divides/](https://www.g20-insights.org/policy_briefs/covid-19-response-strategies-addressing-digital-gender-divides/), (Searching date: 2021.3.31.)
- GSMA(2020), The Mobile Gender Gap Report 2020, GSM Association
- ILO(2020.04). ILO Monitor: COVID-19 and the world of work. Second edition, ILO
- ILO(2021), World Employment and Social Outlook : Trends 2021, ILO
- ITU(2020), Measuring digital development fact and figures 2020, ITU
- Mckinsey&Company(2020), Women in the workplace 2020, Mckinsey&Company
- OECD(2019), Bridging the digital gender divide, OECD
- UN(2020), “The World’s Women 2020: Trends and Statistics.” <https://worlds-women-2020-data-undesa.hub.arcgis.com>, (Searching date: 2020.12.20.)
- UN DESA and World Bank. 2020. “Monitoring the state of statistical operations under the COVID -19 Pandemic.” New York and Washington, D.C.: UN DESA and World Bank.
- UNESCO(2021), Global Education Coalition Gender Flagship, UNESCO
- UN Women(2017), United Nations Entity for Gender Equality and the Empowerment of Women Strategic Plan 2018-2021. 13-16, UN Women

- UN Women(2020), The world for women and girls, UN Women
- UN Women(2020), “Covid-19 and Violence Against Women and Girls: Addressing the Shadow Pandemic.” PolicyBrief no. 17, UN Women
- UN Women(2021), Impact of COVID-19 on gender equality and women’s empowerment in East and Southern Africa, UN Women
- WEF(2020), Acceleration digital Inclusion in the new normal report 2020, WEF
- World Bank, “Engendering ICT Toolkit.” <https://ddtoolkits.worldbankgroup.org/gender-toolkit>. (Searching date: 2021.3.31.)
- World Bank(2020), “Projected poverty impacts of COVID-19 (coronavirus).” :<https://www.worldbank.org/en/topic/poverty/brief/projected-poverty-impacts-of-COVID-19>; (Searching date: 2021.3.31.)

# KISDI Perspectives 발간 내역



연번	제목	저자
2021-01-01	<b>초점</b>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개정의 배경과 주요 내용	라성현·정재윤
2021-01-02	<b>정책동향</b> 영국, 온라인 유해물 유통 회사에 대한 정책 방향 발표	전성호
2021-01-03	<b>정책동향</b> 영국의 유선전화 요금정책: BT의 자발적 요금 인상 제한 방안을 중심으로	윤도원
2021-02-01	<b>초점</b> 코로나19로 인한 소비패턴 변화	장재영
2021-02-02	<b>초점</b> 반도체산업 성장에서 플랫폼(Platform)으로서의 Foundry 중요성	김민식·이영중
2021-02-03	<b>정책동향</b>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EU회원국의 대응동향	황혜인
2021-03-01	<b>초점</b> 모바일 앱 카테고리별 시장구조 및 이용시간의 변화(2019년~2020년)	하승희·이채성
2021-03-02	<b>연구동향</b> 2020년 ICT기반 사회현안 해결방안 연구: 인공지능 사회정책 이슈와 대응 방향 고찰	조성은
2021-03-03	<b>시장동향</b> 터키의 방송시장과 한-터키 방송 콘텐츠 교류 현황	노은정
2021-04-01	<b>정책동향</b> 각국의 디지털서비스세 정책 동향	정연희
2021-04-02	<b>초점</b> AI Multi-curation과 OTT 서비스 콘텐츠의 이용행태 변화	심흥진
2021-04-03	<b>정책동향</b> 금융분야의 마이데이터 제도 도입과 서비스 현황	이은민
2021-05-01	<b>초점</b> EU 인공지능 규제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이경선
2021-05-02	<b>정책동향</b> 디지털 환경에 대응한 독일 경쟁제한방지법 개정	이지현
2021-05-03	<b>정책동향</b> PS-LTE 기반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완료	김사혁
2021-06-01	<b>초점</b> 디지털 시대의 노년층: 포용 혹은 소외	전선민
2021-06-02	<b>초점</b> 미국의 플랫폼 규제 패키지 법안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김현수·강인규
2021-06-03	<b>초점</b> 산업별 ICT 활용도 현황 분석	김정언·손녕선·신우철
2021-06-04	<b>시장동향</b> Huawei에 대한 미국의 제재 영향 본격화에 따른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경쟁 변화 현황 및 전망	오정숙
2021-07-01	<b>연구동향</b>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위한 데이터 위험관리	이경선

KISDI PERSPECTIVES는 국내 외 정보통신방송 관련 주요 정책 및 시장 동향을 분석한 리포트입니다.

문의 : 노희윤 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ICT데이터사이언스연구본부, hyooon@kisdi.re.kr, 043-531-4042)